



초보 농사꾼이 알아야 할 모든 것

귀농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은밀히 마음 속에 품어보는 바람이 있다. 언젠가는 시골에 가서 텃밭에 채소도 키우고, 큰 개도 한마리 마당에 풀어놓고, 천렵을 하거나 느슨하게 책을 읽으며 지내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 그것이다. 도시에서의 삶이 팍팍해져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농촌을 향한다. 그러나 이제는 한가로운 이상향으로서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서다.

지난해 상반기에만도 농촌으로 돌아간 인구는 4141가구, 97년 1년 동안의 귀농인구 1823가구의 3배 가까이 된다. 더러는 성공적으로 정착하지만 어떤 이들은 낮은 환경에 좌절감만을 안고 되돌아온다. 최근 나온 귀농안내서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섰 나가지 못하는 귀농 희망자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귀농의 본질적 목적 환기

가장 눈에 띄는 책은 귀농운동본부가 엮은 《귀농, 아름다운 삶을 찾아서》(두레)다. 귀농운동본부(본부장 이병철)는 귀농희망자들이 농촌에서 올바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1996년에 생긴 단체인데, 창립 이래 귀농학교와 각종 귀농전문강좌, 현장학교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왔다. 이번 책은 귀농학교 강의 내용 등 그동안의 결과물을 엮은 것.

이 책의 강조점은 '귀농'의 본질적인 목적을 상기시키는 데 있다. 도시에서 직장을 잃어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거나 농촌생활에 대한 환상을 좇은 선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귀농은 '제2의 브나로드 운동'으로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는다. 즉, 모든 생명의 존엄을 위협하면서 지구와 온 생명계를 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오늘의 문명을 버리고 새로운 '대안의 문명'을 찾아나서는 '거룩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그 선택은 '거룩한'이라고 수식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많다. 농사 지을 땅을 마련하고 집을 장만하는 것, 농사짓는 법, 농

산물의 판로, 자녀교육과 건강관리의 문제, 이웃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귀농, ...》은 농지 구입의 법적 절차, 초보 농사꾼에게 적당한 농지 면적 같은 소소한 문제부터 퇴비만들기, 오리농법 등 유기농법의 여러가지 방법과 거창하게는 '생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농촌의 미래 모습까지 그려보인다.

《신PD도 언젠가는 농촌간다》(신동현, 씨네포럼), 《서울사람 성공하는 귀농전략》(맹헌승, 은행나무)은 사례를 통해 도시인들이 막연하게 그리는 농촌생활을 구체화한다. KBS에서 기획, 2년 동안 방영한 《농업도 경영이다》의 담당 프로듀서로서 접한 성공 사례를 통해 귀농을 독려하고 있다. 농사를 지어 경제적으로 남부럽

사, 은행 과장, 자영업자 등 전직 샐러리맨들이 몸을 던져 일군 농촌현장 이야기를 통해 초보 농사꾼이 궁금해 할 만한 귀농의 이모저모를 담았다. 농촌생활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자금 조달법과 농지 구입요령을 정보 중심으로 수록하고, 금방 응용할 수 있도록 농사짓기까지의 절차, 초보농사꾼의 3년, 지역주민과의 관계, 초보농사꾼에게 권하는 수익성 높은 농사 등을 소개했다.

낭만에 앞서 현실 알아야

특히, 귀농 희망자들이 전문 영농인들의 노하우와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농협세계화농촌지도자연수원, 전국 귀농운동본부, 한국자연농업협회, 흙살림연구소, 지역 농촌연구소 등에서 운영하는 귀농관련 프로그램도 소개한다. 고소득이 보장되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만만치 않고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화훼, 하우스재배뿐 아니라 농사의 기본이랄 수

있는 비농사도 포함시켜 현실성을 높였다. 작년에 출간되어 인기를 모았던 《흙 속에 돈이 있다》(김중석, 세훈문화사), 《애들아, 우리 시골가서 살자》(이대철, 디자인하우스) 역시 시골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의 체험담. 현실에서 금방 써 먹을 수 있는 정보서라기보다 농사일과 시골생활에서 겪은 일들을 중심으로 쓴 책이다. 명예퇴직으로 대기업을 그만 둔 뒤 15년째 경기도 용인 하늘말 숲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이대철씨의 책 《애들아, ...》는 자연의 아름다움, 전원생활의 넉넉함을 담아 시골생활을 동경하게 하는 에세이에 가깝고, 《흙 속에 ...》는 외환달러를 마다하고 농사에 뛰어든 젊은이 등 네 쌍의 부부이야기다.

농촌으로 향하는 도시인들의 정서는 더이상 "국화꽃 꺾어두고 멀리 남산을 바라보는" 도연명식 낭만에 기대지 않는다. 반대로 황금의 땅 엘도라도로 착각해서도 안될 일이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농사를 돈되는 차세대 사업아이템쯤으로 소개하는 일은 경계해야 할 일"이라며 "농업은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삶의 태도나 가치관의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 이현주 기자



떡잎 없는 수박 접목묘. 《신PD도 언젠가는 농촌간다》중에서.

지 않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지만 농촌에 정착하기까지 겪는 어려움을 가감없이 보여줌으로써 귀농 준비를 실질적으로 도와준다.

꽃·묘목·특용작물 등 작물재배는 물론 자라·사슴·곰팡이·청둥오리 같은 동물사육, 퇴비나 약이 되는 나무로 만들어진 산림처럼 간접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종목들을 소개했다. 책에 나온 체험을 직접 들어보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뒷부분에 연락처도 달아 놓았다.

'있는 그대로의 농촌 현장 사실'만을 실었다는 《서울사람 성공하는 귀농전략》은 1년간의 치밀한 조사 끝에 엮은 책. 대기업 이

귀농 희망자가 늘어가는 요즘 농사법을 소개하는 책이 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 특히 '생산량의 증대'가 모든 허물을 덮던 70년대 개발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나던 80년대 초반부터 유기농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유기농업을 확대·장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한국유기농업보급회의 출범과 《유기농법》(J. I. 로데일)의 출간으로 이어졌다. 흙이 살아 있는 유기체임을 역설하면서 화학비료의 해악을 조목조목 짚고, 올바른 유기농법을 소개한 이 책에 뒤이어 많은 책이 소개됐다. 그 가운데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쓴 《생명의 농업: 자연농법을 통한 대자연으로의 회귀》(정신세계사)와 《짚한오라기의 혁명》(한살림)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연농법의 실재를 알리면서도 자

연을 대하는 인간의 자세까지 언급하고 있어 눈에 띈다.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농법도 시류를 타게 마련. 주기가 짧아 고소득이 보장된다는 버섯 재배법을 담은 《노타리버섯 재배 노하우》(강중석 외, 전원문화사), 《버섯만 잘 키워도 부자가 될 수 있다》(배영신 외, 현실과미래) 등이 요즘 인기다. 새로운 농가소득 자원으로 개발된 품목을 소개한 《특새농업Ⅱ와 발상전환농법》(김양식 엮음, 농민신문사)과 《유기농업 유기농법》(최병환, 한림저널사)은 이상으로서의 유기농업을 생산성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 관심을 모은다. <이현주>

유기농법을 위한 실용서들